

# 7월 OPEC 생산량

유가 안정화 의지 재확인. WTI는 70달러 내외에서 안정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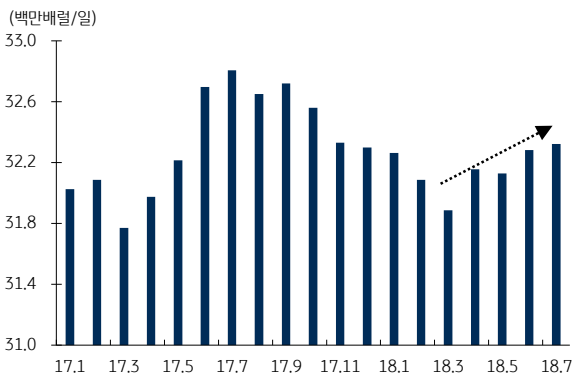
## 사우디의 생산량 감소에도 OPEC의 생산량은 증가

- 7월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6월보다 4.1만배럴/일 증가한 3,232.3만배럴을 기록했다.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 7월 감산 이행률은 134.2%를 기록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감산기간의 평균 감산 이행률은 138.1%이다.
- 7월 생산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우디를 제외한 다른 OPEC 국가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OPEC의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사우디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7월은 UAE, 쿠웨이트, 앙골라, 이라크 등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사우디의 7월 생산량은 지난 6월보다 5.3만배럴/일 감소했다.

## OPEC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유가 안정화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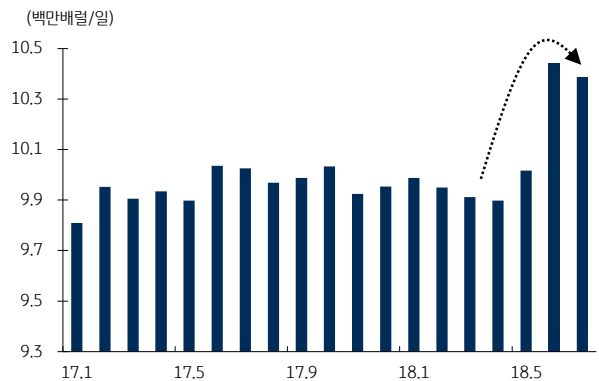
- 하반기 WTI가 70달러/배럴 내외에서 움직인다는 전망을 유지한다.
- KB증권은 지난 8월 8일 자료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를 통해 11월 5일 시작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인 이유 중 하나로 OPEC의 유가 안정화 의지를 제시했다.
- 7월 OPEC 생산량을 통해 OPEC의 유가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6월은 OPEC의 생산량 증가가 사우디가 만든 결과라면 이번 7월은 사우디를 제외한 다른 OPEC 국가들이 만든 결과이다. OPEC 전반적으로 유가 안정화 의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사우디가 생산량을 감소시킨 것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가 안정화 의지로 판단해야 한다. 이란 제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우디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감산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OPEC은 2018년 글로벌 원유 수요를 일일 9,883만배럴로 지난달보다 2만배럴 하향 조정했다. 2018년 수요를 전망한 이후 처음 하향 조정했다. 경기 우려로 인해 원유 수요 둔화가 최종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OPEC의 원유 생산량



자료: OPEC, KB증권

그림 2.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



자료: OPEC, KB증권



## 투자자 고지 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동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